

韓國文獻이 나에게 던져 준 質問들*

- 未決의 章을 위한 提言 -

류 탁 일**

차 례

- | | |
|--------------------|---------------------|
| I. 말머리를 풀면서 | IV. 韓國文獻에 던진 自問自答 |
| II. '文獻'이라는 話頭와 學問 | V. 드러나는 텍스트 批評의 課題들 |
| III. '文獻'에 대한 既有知識 | VI. 마무리 말 |

I. 말머리를 풀면서

내가 추구해온 학문은 문헌학이다. 문헌학의 대상은 문헌이다. 문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문의 전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료이다. 학문 연구에서 잘못된 문헌을 자료로 사용했을 경우, 그 결과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헌은 순수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처럼 문헌의 순수성과 정당성

* 이 글은 고 류탁일 교수님께서 2005년 12월 10일 한국문학회에서 주제 강연으로 발표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며, 각주는 교수님의 논문 가운데 발표 내용에 해당하는 논문을 가려서 제시한 것이다.

** 류탁일 교수께서는 이 글을 논문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2006년 11월 18일 타계하셨다.

을 추구하는 학문이 문헌학이다.

나는 스스로 문헌학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문헌학은 기초학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문헌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완결될 수 있으며, 이러할 때에 문헌학은 고유한 학문으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다양한 문헌을 접하면서 문헌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밝히는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그 결과로 문헌학의 고유한 지식 체계를 수립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¹⁾

한국문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조 발표의 주제는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론의 모색이며, 그 대상은 텍스트이다. 방법론의 모색이라는 주제는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때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접근했던 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문헌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평생 동안 방법론을 모색해온 틀과 그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내 스스로 모색해온 방법론은 완성된 것도 아니며, 완전한 것도 아니며, 절대적인 원칙도 아니다. 방법론은 학문의 대상이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연구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며, 또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발표할 제목을 “한국문헌이 나에게 던져준 질문들, 미결의 장을 위한 제언”으로 정했다. 나는 문헌학을 연구하면서 문제를 던졌으며, 던져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미결의 장’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다.

1)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이하에서는 류탁일 교수의 논저일 경우에 저자명 및 필자명을 생략한다.

II. ‘文獻’이라는 話頭와 學問

문헌은 문자로 기록된 서적, 문서, 비문 탁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서를 가까이 하면서 자랐다. 그때에 고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거기에 적힌 글을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고서가 무엇인지, 거기에 적힌 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고서를 통해서 문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이규보의 <問造物>이라는 화두를 차용하여 나의 화두를 던졌다.

- A) 너는 무엇이나?
- B) 나는 ‘文獻’이다. 왜?
 - A) 누가 너를 ‘文獻’이라 했느냐?
 - B) 나는 모르겠다. ‘조물주’가 붙여준 이름이니, ‘조물주’에게 물어 봐라.
 - A) 조물주님, 왜 ‘文獻’이란 이름을 주었습니까?
 - C) 나도 모르겠다.
 - B) 조물주이신 당신이 왜 모릅니까?
 - C) 누가 나를 ‘조물주’라고 했는지 나도 모른다. 답답하거든 네가 한번 풀어 봐라.

나의 물음은 나에게서 일어나 문헌을 거쳐 조물주에게로 향했으나, 조물주는 그 물음을 결국 나에게 되돌려주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문헌에 대해 ‘문헌’도 모르며, 심지어 ‘조물주’까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나에게 물어보라고 미루는 것이었다. 나는 조물주마저도 알지 못하겠다고 한 문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평생 동안 ‘문헌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지니고 있었으며,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이 문헌학을 연구하기 위해 스스로 모색한 방법의 틀인 것이다.

그러면 학문이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스스로 그것을 풀어

보는 일이 바로 학문의 시작이다. 즉 학문의 시작은 모르는 것에 대해 직면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학문은 未知의 세계를 하나 하나 論理的으로, 體系的으로 認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學問’이란 ‘學’과 ‘問’의 結合體이다. ‘學’의 배운다는 것은 이미 인식되어진 것, 즉 既有知識을 이해하는 ‘學習’이다. 그리고 ‘問’의 묻는다는 것은 학습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일이다. 의문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은 욕구에서 일어난다. 즉 問이란 既有知識의 바탕 위에 새로운 認識을 위한 質問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학문이란 이미 알려진 것은 학습하고, 그래도 알지 못하는 것은 질문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學問’은 ‘認識되어진 것의 認識’과 그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질문을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認識’이란 2개 層位를 갖는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학문은 論과 史의 座標를 設定하는 것이다. 論은 공간적 좌표이며, 史는 시간적 좌표이다.

Ⅲ. ‘文獻’에 대한 既有知識

학문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합이라고 설명하였다. 먼저 문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既有知識을 정리한다.

첫째, 문헌은 물질이다. 모든 문헌은 종이와 같은 물질로 형성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 문헌이란 말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문헌은 서적, 문서, 비문의 탁본 등을 포함하는 용어인데, 이들은 모두 물질로 존재한다.

둘째, 문헌은 언어의 가시적 표현물이다. 문헌에서 문은 글자를 의미한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시적 형태로 드러내려고 할 때

에 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문헌은 문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즉 문헌은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로써 기록된 것, 즉 언어의 가시적 표현물이라고 한정된다.

셋째, 문헌은 삶의 경험을 기호화, 고정화, 영속화한 것이다. 모든 문헌은 인간의 경험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문헌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고정되며, 문헌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속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문헌은 기호 즉 문자와 그를 담은 용기[종이 등]로 구성되고 있으며, 우리 삶을 가시적 기호화, 의미의 고정화, 전달의 영속화로 표현한 물증이다. 그러므로 가시적 형태로 존재하는 문헌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되어진 것에 대한 인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문헌을 만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것’에 대하여 문헌을 접하는 사람이 인식되어진 것을 재인식하여 ‘새롭게 인식’이 보태어지는 것이 문헌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문헌 인식=재인식+새로운 인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식되어진 문헌에 대해서 재인식하여 새로운 인식을 보태는 일은 문헌학 연구의 기틀이 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조물주도 ‘모르겠다’는 ‘문헌’에 대하여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自問自答’할 수밖에 없었다.

IV. 韓國文獻에 던진 自問自答

문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해 문헌 또는 조물주에게 물었지만 문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문헌이란 이름을 붙인 조물주마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스스로 물었던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문헌에 대해 인식되어진 既有知識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문

헌학을 연구했다. 즉 自問自答이 방법론을 모색하는 기본적인 틀이었던 것이다.

문헌학의 대상인 문헌의 실체를 알기 위해 질문하고 답한 영역은 (1) 文獻形態論, (2) 組織編纂論, (3) 印刷技術論, (4) 記寫樣態論, (5) 收藏保存論, (6) 文獻本性論, (7) 背景流通論, (8) 變化傳承論, (9) 眞僞判別論, (10) 原典批評論, (11) 翻譯註釋論, (12) 文獻美學論과 같이 12부문이었다. 이 12부문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文獻形態論

문헌의 겉모습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 등으로 구체화된다.

한 권의 문헌을 인식하는 일은 우선 문헌의 외부를 살피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한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왜 이런 크기로 만들어졌는가, 가로와 세로는 어떤 연유로 이런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가, 왜 황색의 표지를 사용했는가, 글자가 왜 광곽 안에 쓰여있으며, 행과 행 사이에 왜 계선이 있는가, 위의 여백과 아래의 여백은 왜 다른가, 어미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등 이런 질문들을 연속적으로 던졌다. 이런 질문들은 문헌의 형태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서적을 보면서 왜 황색의 표지를 사용하였으며, 왜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홍색 또는 청색의 실을 사용하여 제본을 하였는지, 이런 의문을 계속적으로 물어왔다. 그 결과 이런 모습의 의미를 五針에 근거하여 五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책표지의 황색, 종이의 백색, 글씨의 흑색, 실의 홍색 또는 청색이 다섯 가지의 색이 된다. 그리고 표지의 황색은 오행으로 중앙에 해당하며, 이 중앙은 안전을 의미한다. 즉 황색의 표지는 문헌의 내용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겠다. 문헌에 대해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문헌의 모습과 그 모습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문헌의 존재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였다.²⁾ 그리고 조사한 문헌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다.³⁾

이처럼 문헌 형태의 발전과 그 존재 양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를 文獻形態論이라고 하였다.

2. 組織編纂論

문헌의 외형을 보고 나니 그것의 짜임새에 대한 물음이 일어났다. 이 물음은 어떠한 원리로 짜여 있을까,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장하고 있는가 등으로 구분된다.

거의 모든 문헌을 보면 제목은 다른 행보다 낮은 곳에 쓰여 있다. 어떤 행은 길게 쓰여 있고, 어떤 행은 짧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어떤 행은 다른 행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차이들은 문헌의 짜임과 관계되고 이 짜임은 내용을 담은 외적 형식이다. 이러한 짜임새는 우주론적인 인식의 바탕이 된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강의를 하면서 만든 교재에서 정리하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문헌의 짜임새 및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결구 형식과

2) 『嶺南文獻錄』(경남편), 『國語國文學』 28집, 국어국문학회, 1965.

『嶺南地方刊行 有刊記 佛書目錄』, 『鄉土文化』 3집, 1970.

『安東地方 刊行 典籍目錄 草稿』, 『安東文化』 1집, 1971.

『嶺南地方刊行 古書簡易目錄(一)』, 『韓國漢文學研究』 2집, 韓國漢文學研究會, 1977.

『嶺南地方刊行 古書簡易目錄(二)』, 『韓國漢文學研究』 3-4집, 韓國漢文學研究會, 1978-1979.

『韓國僧侶詩文集目錄草』, 『語文教育論集』 6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2.

3) 『嶺南刊行 木記本 七書刊行攷』,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4.

『嶺南地方刊行 典籍의 統計的 考察』, 『釜山大學校 教養課程部論文集』 제2집, 부산대, 1971.

『경상감영의 圖書出版』, 『慶尙監營四百年史』, 大邱鄉土文化研究所, 1998.

편집 양상의 필연적인 구도를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組織編纂論이라고 하였다.

3. 印刷技術論

문헌의 형태와 조직을 알고 난 후에 문헌의 印刷方法과 그 技術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 물음은 문헌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쇄하였을까, 이런 기술을 어떻게 익혔을까 등으로 구체화된다.

문헌은 필기류를 사용하여 직접 쓰는 방법과 인쇄 기술을 사용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인쇄 기술은 목판, 토판, 활자, 석판, 광학 [영인]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목판은 어떻게 만들었고, 활자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으며, 인쇄를 하는 데에 어떤 도구가 필요하며, 인쇄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누가 인쇄를 하였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연쇄적으로 던지고 스스로 차근차근 답을 찾아왔다.⁴⁾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목활자 인쇄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인연으로 나는 세계 학자들에게 목활자 전공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목활자 전공자로 알려지게 된 일은 문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다.

이처럼 문헌의 인쇄 방법과 기술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印刷技術論이라고 하였다.

4. 記寫樣態論

문헌의 내용은 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방점과 부호가

4) 『嶺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奎章閣』 3집, 서울대 도서관, 1979.
『韓國木活字 印刷術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 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探村幾個韓國古木活字印刷技術之特徵』(中文),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 1985.
『15世紀 韓中造紙技術에 대하여』, 『季刊書誌學報』 2호, 韓國書誌學會, 1990.

표기되어 있다. 이런 表記 文字에 대한 물음이 일어났다. 이 물음은 무슨 文字로 쓰여 있는가, 어떠한 보조 부호를 사용하였는가 등으로 구체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가 전래된 이후 한자를 중심으로 문자생활을 하였다. 한자를 사용한 한문 문장은 중국 한문화의 한문 체계와 한국식의 한문 체계로 구분되는데, 이런 차이를 알아야 문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식 한문 체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문 문장을 그대로 두고 그 문장을 한국어화 할 때에 한국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구결이다. 한글과 한문의 이중 문자생활을 한 우리 민족에게 한문의 한국어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알지 못하면 문헌의 내용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세기 유가의 문헌 또는 불가의 문헌에 사용한 구결을 최초로 정리하였던 것이다.⁵⁾

한편 한문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상대 존대법 또는 주체 겸양법이 없다. 그래서 한문의 문헌에는 상대 존대 또는 주체 겸양을 보조하는 문장 표기를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할 때에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 이때 공백은 문자가 없지만 같은 말의 반복임을 알아야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佛書의 경우, “나무아미타불”라는 말이 반복될 경우에 그것을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둔 문헌들이 있다. 이 때 읽는 사람이 이 공백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읽어야 한다. 국학 특히 고전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 부

5) 『鮮初 文獻에 쓰여진 佛家口訣』, 『語文教育論集』 1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76.
 『漢文解讀方法과 儒家口訣』,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朝鮮朝 文獻에 사용된 半字』,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板刻國文書體의 變遷과 完板坊刻小說의 國文書體』,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 학문사, 1981

호를 정리하게 되었다.⁶⁾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록 문자와 표기 방법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記寫樣態論이라고 하였다.

5. 收藏保存論

문헌의 蒐集과 保存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문헌을 수집하고 보호하였을까, 문헌의 보존을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였을까 등으로 구분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이런 모양으로 나에게 왔는지, 어떻게 해야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가, 책이 좀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물음을 계속 던졌다.

문헌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인쇄된 종이에 밀을 먹였는데, 이 종이는 긴 세월이 지난 뒤에 쉽게 부서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복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밀을 먹이지 않은 종이는 밀을 먹인 종이보다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책의 절반 정도가 불에 타버린 문헌도 발견된다. 이는 아마 호롱불 또는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다가 그 불이 책에 옮겨 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문헌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문헌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쉬운 탓으로 아직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문헌학에서 꼭 있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강의만 하였다.⁷⁾

이처럼 문헌의 수집, 분류, 보존의 시·공간적 이해에 대한 체계를 收

6) 「古文獻의 文章符號와 尊待謙讓方式」, 『于海李炳銑博士華甲紀念論集』, 1987.

7) 「韓國地區中國古籍存藏現況」(中文),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 1985.

藏保存論이라고 하였다.

6. 文獻本性論

문헌의 物性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은 사본은 어떠한 성질을 가졌을까, 인본의 성질은 어떠한가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문헌학에서는 문자로 표현된 언어를 담는 자료가 갖는 근본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파악되어야 그 문헌의 가치를 가려낼 수 있다. 인간은 물질적 자료 위에 서사 또는 인쇄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문헌을 만들어 낸다. 문헌을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 때에 물건은 반드시 물성을 갖기 마련이다. 이런 시각에서 사본의 성질을 발표하였고, 목판본 또는 활자본, 그리고 영인본의 성질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였다.⁸⁾

이런 일련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사본의 내용이 필사자의 정신적인 피로에 따른 무의식적 변화와 자기류의 해석에 따른 의식적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았다. 목판본의 경우에는 필사본이 살신성인함으로써 이루어지며, 刻手의 刻字 상황에 따라서 문헌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영인본은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하고 원래의 문헌을 편집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구의 자료로 삼을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의 과제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니터로 볼 때 그것이 문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찾는 일이다.

문헌의 제작 과정에 따라서 구분되는 사본, 목판본, 활자본, 석인본, 그리고 영인본 등의 성질을 이해한 내용의 체계를 文獻本性論이라고 하였다.

8) 『寫本の 性質』, 『효원』 16, 부산대학교, 1972.

『木版本의 性質』, 『國語國文學』 제12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75.

『古活字本の 性質』,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石版·影印本の 性質』,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7. 背景流通論

문헌의 생성 背景과 流通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이 물음은 문헌생성의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어떠한 역사환경이 이 같은 문헌을 낳게 했는가—, 어떠한 힘이 이 문헌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등으로 구체화된다.

문헌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요구 또는 필요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이런 관점은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헌의 생성 배경과 문헌들의 배급 과정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문헌의 수요자가 어떠한 문화적 성격을 갖는 계층이었는지도 밝힐 수 있었다.

방각본은 서적에 대한 수요자의 증가로 인하여 영리에 민감한 상인층이 출판한 문헌이며, 근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방각소설은 소설에 대한 수요자의 증가로 인하여 영리에 민감한 상인층이 출판한 문헌이기에 방각소설의 문화사적 의의도 높은 것이다. 문화사적 측면에서 방각본의 형성배경, 원류, 매개, 유통관계를 설명하였다.⁹⁾

9) 『完版 坊刻小説 刊行의 背景攷』, 『釜山大學校 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 29집, 부산대, 1980.6.

『完板坊刻本 刊行書舖』, 『完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 학문사, 1981.

『湖南地方刊行坊刻本の 來脈—泰仁 孫基祖, 田以采, 朴致維 刊本—』, 『인문논총』, 제22집, 부산대, 1981·1984.

『湖南地方刊行 坊刻本 研究』(I), 『人文論叢』 20집, 부산대 인문대학, 1981.

『湖南地方刊行 坊刻本 研究』(2), 釜山大學校 『人文論叢』 23집, 부산대 인문대학, 1983.6.

『京板坊刻本 研究 方向』, 『도남학보』 제7집, 도남학회, 1984.

『京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를 위한 摸索』, 『陶南學報』 7-8집, 陶南學會, 1985.

『大邱地方刊行 達板坊刻本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제3집, 書誌學會, 1988.

『古小説의 流通構造』, 『韓國古小説論』, 亞細亞出版社, 1991.

『流通媒體로서의 古小説의 文헌성과 變化』, 『古小説史의 諸問題』(省吾蘇在英教授還曆紀念論叢), 집문당, 1993.

이처럼 문헌의 생성 배경과 보급에 대한 연구를 背景流通論이라고 하였다.

8. 變化傳承論

문헌의 內的 變化와 傳承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적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가, 변화요인은 무엇일까, 내용은 어떻게 변천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그 양태와 요인은 무엇일까 등이다. 변화는 공시대의 관점이며, 전승은 통시대의 관점이다.

동일한 제목의 서로 다른 문헌에서 달라진 내용이 발견된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헌의 변화는 의식적인 변화, 무의식적인 변화, 그리고 물리적 변화와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헌의 내적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문헌의 내용이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 현상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시간적 또는 공간적 유통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¹⁰⁾

-
- 10) 『出版史的 側面에서 본 古小說의 史的 變容』 『사대학예』 제5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74.
 『完板坊刻小說의 文獻變化 樣相과 그 要因』, 『어문연구』 9권 3·4호, 일조각, 1981.
 『三國遺事의 文獻變化 樣相과 要因』 - 그 病理學的 分析 -, 『三國遺事研究』(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星湖李瀼의 文集刊行攷』, 『國語國文學』 7-8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68.
 『星湖李瀼의 文集刊行攷 補遺』, 『國語國文學』 10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71.
 『朝鮮朝 日本刊行 韓國書籍 初探』, 『語文教育論集』 8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4.12.
 『退溪의 <朱子書節要>와 그 影響』 - 外來文獻의 韓國的 受容과 展開 -, 『靑康泉龍權博士頌壽紀念論叢』, 1986.
 『<朱子書>在韓國接受過程之研究』(中文), 『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 臺灣, 1987.
 『剪燈新話, 剪燈餘話의 韓國展開와 受容』, 『茶谷李樹鳳先生回甲紀念論叢 - 古小說研究論叢』, 아세아문화사, 1988.

최근에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三國遺事』 권5·6이 공개되었다. 이 판본을 다른 판본과 대비해보면 문헌의 형태는 같지만 판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에는 기본적으로 쓸데 없는 내용이 쓰여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범어사 소장의 『三國遺事』는 텍스트 형성의 비밀을 안고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비밀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三國遺事』는 그 본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신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문헌의 공시적 변화와 통시적 전승에 대한 연구를 變化傳承論이라고 하였다.

9. 眞僞判別論

문헌의 眞僞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眞書’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僞書’라고 판단하는가 등이다.

문헌은 생성할 때의 불완전한 요건 또는 전승되는 과정에서의 변화 등으로 그 진위와 시비를 가려내야 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 진위나 시비를 가려야 그 문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문헌 가운데 이른바 국보급에 해당하는 귀중한 고서의 경우, 아주 정교하게 복제한 서적이 출현한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새로 발견된 『월인석보』라고 하면서 나에게 가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진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까닭은 고서를 다루어온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의 문장으로 인쇄된 행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문헌 특히 귀중본의 경우 그것이 眞書인지, 아니면 僞書인지를 판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진서와 위서를 판별하는 일은 오랫동안 고

서를 접해본 경험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접근 방법에는 王道가 없으며,提起된 문제에 따라 방법이 결정된다. 다만 전적으로 ‘실증적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문헌의 진위를 밝히고 설명할 수 있었다.¹¹⁾

이처럼 문혀진 사실을 밝혀 문헌의 진위를 가려내는 연구를 眞僞判別論이라고 하였다.

10. 原典批評論

‘文學의 텍스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다. 이 물음은 기본적으로 문학 텍스트는 어떻게 짜여지는가, 원전비평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으로 표현된다.

문학적 텍스트는 ‘一定한 言語記號로써 짜여진 意味的 構造物이요, 關聯的 存在다.’ 일정한 언어기호란 ‘음성→음운→어휘→구절→문장→단락→편장→한 마디글과 같이 문학 텍스트의 언어적 구성단위’를 뜻한다. ‘짜여진 意味的 構造物’이란 主題具現을 위한 作爲的 結構의 內的 構成을 의미하며, 약속적 상황과 실현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關聯的 存在’란 하나의 텍스트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의미한다.

원전비평은 간단히 말하여 텍스트의 措定이다. 텍스트를 조정하는 원전비평의 목적은 첫째, 텍스트의 純粹性和 正當性 찾기, 둘째, ‘異文’에 의한 系譜設定, 셋째, 研究對象의 選擇 등 세 가지이다.

11) 「의유당유고(未發表)와 그 作者」, 『朝鮮後期の 言語와 文學』, 한국어문학회, 1978.

「意幽堂日記의 作者에 대하여」, 『韓國文學論叢』 제1집, 韓國文學會, 1978.

「李龍六歌攷」, 『釜山大學校 敎養課程部論文集』 4집, 부산대, 1974.

「日本人刊行 한글活字本 <崔忠傳>攷」, 『松具郎然軾博士華甲紀念論集 國文學研究』, 1985.

「初刊 三綱行實圖에 對하여」, 『國語國文學』 11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74.

텍스트의 본문은 ‘原文과 異文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의 글’이다. 원문이란 발신자가 표출한 최초의 텍스트이며, 이문이란 원문과 다른 글이란 뜻이다. 이문은 원문 속에서 달라진 것이며, 한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를 대비해봄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이본은 이문이 나타나는 텍스트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본도 하나의 이본이 된다. 그래서 이본도 독립된 텍스트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본은 반드시 계보가 설정되고 난 이후에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원문과 이문, 원본과 이본은 函數關係다. 텍스트의 본문에서 원문이 이문보다 많을 경우 原文의 原型設定이 가능하지만, 원문이 이문보다 적을 경우 原文이 異文化되어 코드의 轉換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텍스트의 변화는 계속적이 변화와 독립적인 변화로 구분된다. 이본 생성의 과정이 계속적 변화일 때는 계보설정이 쉽지만, 독립적인 변화일 때는 계보설정이 어렵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텍스트비평에 王道가 없으며, 對象과 目的에 따라 最適한 方法을 創出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본이 많은 문헌들, 특히 고소설의 계보를 설정하고 연구 대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¹²⁾

그러나 일찍부터 원전비평을 하고 싶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課題가 두 개이다.

첫째 과제는 校勘文獻의 원전비평이다. 守其의 『高麗國新彫大藏校正

12) 「文獻批評의 方法」, 『교양학예』 제3집, 부산대 교양과장부, 1972.

「完板 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完板 沈淸傳의 文獻學的 分析」, 『韓國文學論叢』 3집, 한국문학회, 1980.

「完板 劉忠烈傳의 文獻學的 分析」, 『語文教育論集』 5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0.

「完板 趙雄傳의 文獻分析과 系譜設定」,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 학문사, 1981.

「桂苑筆耕集의 文獻學的 照明」, 『孤雲의 思想과 文學』, 坡田韓國學堂, 1997.

「完板 <春香傳類>의 文獻學的 研究」(日本語), 『韓』 114호, 韓國研究院, 1989.

別錄』(30권)과 1236년(고종23)부터 1251년(고종38)사이에 판각된 『再雕大藏經』이 그것이다. 팔만대장경은 거란본, 송나라본, 고려본으로 남아 있다. 이 판본들의 원전비평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하기만 한다면 세계적인 연구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자문만 하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과제는 節要文獻의 원전비평이다. 절요는 ‘刪其繁而節其要’의 줄인 말인데, 李滉의 『朱子書節要』(20권)의 원전비평이다. 주자는 2,000여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퇴계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가려서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였다. 『주자서절요』에 실린 편지와 『주자문집』에 실린 편지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주자문집』에 실린 편지를 건별로 카드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두 문헌 내용의 비교를 통해 退溪著述이 輯錄的이거나, 節要的이거나, 註釋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뿐이며, 아직 『주자서절요』의 원전비평을 하지 못했다. 『주자서절요』의 원전비평이 이루어진다면 조선시대의 유학자가 주자의 학문을 수용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렸는가 하는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문학 텍스트가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될 때에는 그 문헌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그 문헌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연구 결과는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이처럼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헌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보를 설정하고, 연구 대상을 선택하는 연구가 原典批評論이다.

11. 翻譯註釋論

‘翻譯’과 ‘註釋’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 답을 스스로 찾으려 했다.

먼저 翻譯이란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물음이다. 번역이란 다른 言語體系로의 轉換이다. 우리나라에서 翻譯의 始祖는 ‘以方言讀九經 訓

導後生 至今學者 宗之'(『三國史記 권4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薛總이다.

다음으로 註釋이란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 라는 물음이다. 주석은 意味의 疏通을 가능하도록 하며 아울러서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註釋의 始祖는 '此經略開四門分別 初述大義 次辨經宗 三釋題名 四消文義'(『金剛三昧經論』)에서 보는 것처럼 元曉이다.

번역과 주석에 관해서 스스로 제기한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¹³⁾ 예를 들면 文獻註釋과 '概念圖'의 한국적 特徵이다. 개념도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되도록 간략하게 도식화한 그림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어려운 학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개념도를 잘 그렸다. 鄭道傳의 『入學圖說』, 李滉의 『聖學十圖』, 柳正源의 『河洛指要』에 실려 있는 개념도는 유명하다. 특히 『入學圖說』의 「天人心性合一之圖」는 인체의 모형으로 하여 天人心性合一의 이해를 돕도록 배려한 개념도이며, 『河洛指要』는 주역에 대한 이론을 모두 도식화하여 48종의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 개념도의 특징은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對稱的表現이며, 둘째는 層位的表現이고, 셋째는 連線的表現이고, 넷째는 物像的表現이다.

이처럼 문헌의 번역과 주석을 따지고 그 변천을 설명하는 연구를 翻譯註釋論이라고 하였다.

13) 「『朱子書節要』의 註釋書에 대하여」, 『退溪學論叢』 제3집, 退溪學會, 1997.

「『朱子書節要』註釋의 脈絡과 그 註釋書들」, 『書誌學研究』 제5·6합집, 書誌學會, 1990.

「韓國文獻註釋史序說抄」(1), 『坡田金戊祚博士回甲紀念論叢』, 1988.

12. 文獻美學論

韓國文獻은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는 물음이다. 스스로 관찰하고 사색한 결과 한국문헌의 美를 찾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한국문헌에는 大小의 美, 實用의 美, 表紙의 美, 編輯의 美, 圖畫의 美, 書體의 美, 그리고 餘白 또는 空白의 美 등이 놀라울 정도로 종합적인 조화를 이룬다. 이런 조화의 美에는 한국인의 美意識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고문헌의 미는 같은 동양에 위치해 있는 중국 또는 일본에서 생산된 문헌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한국문헌의 미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圖畫는 문헌 속에 삽입된 그림이나 도형을 말하며, 이 그림이나 도형은 앞에서 언급한 개념도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장치의 하나이다. 그림 중에는 古拙하여 맛이 있는 것도 있지만 치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오률행실도』와 같이 정교한 그림도 있다. 그리고 그림의 구성을 『삼강행실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移行的 複合構成과 『오률행실도』에서 보는 寫實的 單面構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국 고문헌의 표지는 독특한 문양을 넣어서 만들어졌다. 표지에 문양을 넣기 위해 만든 능화판을 ‘책판문양판’이라고 불렀고, 그 문양을 ‘책판문양’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책판문양 생성의 역사를 밝혔고, 그 문양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정리하였으며, 표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해명하였다. 그리고 ‘여백의 미’에 대해서는 구두로 발표한 적이 있거나 아직 완성된 논문으로 쓰지는 못했다.¹⁴⁾

이처럼 문헌을 미적 대상으로 삼아서 미적 자질을 따져보는 연구가 文獻美學論이다.

14) 「韓國 古文獻에 內在한 空白(餘白)의 意味 摸索」, 동국대학교, 1998. 5. 발표

V. 드러나는 텍스트 批評의 課題들

연구에서 텍스트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 텍스트를 접할 때마다 그 텍스트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항상 생각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문학 연구에서 필요한 텍스트 비평의 과제들을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 고시가의 경우이다. 고시가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에 대해 텍스트 비평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최치원의 문집인 『계원필경』도 이에 해당한다. 『계원필경』은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면서 많은 이본으로 현전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많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窓外三更雨 燈前萬[里]心 ⇨ 窓外三更雨 燈前萬[古]心

위의 예에서 “里”와 “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글자의 차이에 따라서 시의 의미가 달라지며, 시의 의미가 달라지면 시인의 정서와 시심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차이를 두고 어느 것이 순수하고 정당한지는 최치원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둘째, 고소설의 경우에는 많은 이본들의 계보설정과 원전확정이 중요하다. 고소설은 동일한 작품이 다양한 이본으로 현전하고 있다. 한 작품이 한문표기로 창작된 후에 국문표기로, 또는 국문표기로 창작된 후에 한문표기로 번역되거나 변안된 작품이 많다. 이처럼 이중의 문자체제로 표기되어 공존하고 있는 작품의 경우는 어느 쪽이 앞선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연구의 대상 텍스트로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고소설을 연구하기 앞서 텍스트 비평이 선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현대시의 경우이다. 현대시는 인쇄매체에 따른 변화가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문예지에 발표한 시들을 모아서 시집으로 간행할 때에 시인 또는 출판자가 본문을 변화시킨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된다. 그래서 각종 시집을 비롯한 발표매체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原文을 措定하고 작품의 系譜를 設定해야 연구자가 순수하고 정당한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현대소설의 경우이다. 현대소설은 시대적 상황과 제도의 요구에 의한 내용의 강제적인 檢閱, 작가의 의식 변화에 의한 내용의 改作과 縮約 등에 따른 본문변화가 심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집 또는 전집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텍스트의 原型을 摸索하고 각 작품의 계보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평생 동안 문헌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얻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런 텍스트비평은 이미 연구되었거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VI. 마무리 말

문헌을 연구하기 위해 자문자답한 12개의 부문은 (1)文獻形態論, (2)組織編纂論, (3)印刷技術論, (4)記寫樣態論, (5)收藏保存論, (6)文獻本性論, (7)背景流通論, (8)變化傳承論, (9)眞僞判別論, (10)原典批評論, (11)翻譯註釋論, (12)文獻美學論이다. 이 12부문은 治書部門과 治學部門으로 분류할 수 있다. 治書部門은 (1)에서부터 (6)까지이다. 그 내용은 '인식되어진 것의 인식' 즉 재인식인데, 이는 책을 다루기 위한 기초 지식이다. 다시 말하면 인식에 대한 재인식이다. 그리고 治學部門은 (7)에서부터 (12)까지이다. 그 내용은 '새로운 인식'이며,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제기한 물음에 대해 스스로 추구한 답이다. 이것이 한국문헌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평생동안 모색해온 방법론의 틀이다.

문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고유한 학문으로서 문헌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놓고 나는 스스로 문헌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문헌학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 제기한 물음에 답하지 못한 과제도 있으며, 앞으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물음도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새로운 접근 방법론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헌에 대한 인식을 12부문으로 나누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상 또는 실체는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연구도 이 문헌의 12부문 질문의 틀에 대입하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학문의 방법에는 왕도가 없으며, 자기류의 질문과 응답의 방법을 계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 文獻, 文獻學, 方法論, 自問自答, 文獻形態論, 組織編纂論, 印刷技術論, 記寫樣態論, 收藏保存論, 文獻本性論, 背景流通論, 變化傳承論, 眞偽判別論, 原典批評論, 翻譯註釋論, 文獻美學論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 자료는 류탁일 교수님의 연구 저서와 논문 목록이다.

① 著書

1. 『完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研究』, 學文社, 1981.
2. 『韓國文獻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89.
3. 『韓國古小説批評資料集成』, 亞細亞文化社, 1994.
4. 『星湖學脈의 文集刊行研究』, 釜山大學出版部, 2000.
5. 『嶺南地方出版文化論考』, 世宗文化社, 2001.

② 論文

1. 「<訓蒙字會> 板本에 對하여」, 『國語國文學』 12집, 영남 7개대학 연합, 1962.
2. 「嶺南文獻錄」(경남편), 『國語國文學』 28집, 국어국문학회, 1965.
3. 「慶南地方의 出版文化 研究」, 『杏丁李商憲教授回甲紀念論文集』, 형실출판사, 1968.
4. 「星湖李瀼의 文集刊行攷」, 『國語國文學』 7-8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68.
5. 「實錄을 통해 본 崔世珍의 一生」, 『國語國文學』 9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69.
6. 「嶺南地方刊行 有刊記 佛書目錄」, 『鄉土文化』 3집, 1970.
7. 「嶺南刊行 典籍文化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1970.
8. 「星湖李瀼의 文集刊行攷 補遺」, 『國語國文學』 10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71.
9. 「安東地方 刊行 典籍目錄 草稿」, 『安東文化』 1집, 1971.
10. 「嶺南地方刊行 典籍의 統計的 考察」, 『釜山大學校 教養課程部論

- 文集』 제2집, 부산대, 1971.
11. 「未發表作品 ‘날리가’에 對하여」, 제16회 전국국어국문학연구발표대회, 『國語國文學』 61, 국어국문학회, 1973.7.30.
 12. 「李鼈六歌放」, 『釜山大學校 教養課程部論文集』 4집, 부산대, 1974.
 13. 「初刊 三綱行實圖에 對하여」, 『國語國文學』 11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74.
 14. 「嶺南刊行 木記本 七書刊行放」,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4.
 15. 「龍飛御天歌에 音解된 漢字索引」, 釜山大學校 人文·社會科學院 『論文集』 17집, 부산대, 1974.
 16. 「木版本의 性質」, 『國語國文學』 제12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75.
 17. 「開化期 教科用圖書 總錄」, 『韓國學論集』 2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18. 「東學敎와 그 歌辭」, 『韓國語文論叢』, 한국어문학회, 1976.
 19. 「尙火의 詩的 母胎를 알리는 文字들」, 『文學思想』 41호, 1976.
 20. 「鮮初文獻에 쓰여진 佛家口訣」, 『語文敎育論集』 1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76.
 21. 「嶺南地方刊行 古書簡易目錄(一)」, 『韓國漢文學研究』 2집, 韓國漢文學研究會, 1977.
 22. 「嶺南地方刊行 古書簡易目錄(二)」, 『韓國漢文學研究』 3-4집, 韓國漢文學研究會, 1978-1979.
 23. 「朝鮮 後期歌辭에 나타난 庶民의 意向」, 『淵民李家源博士六秩頌壽紀念論叢』, 汎學圖書, 1977.
 24. 「의유당유고(未發表)와 그 作者」, 『朝鮮後期の 言語와 文學』, 한국어문학회, 1978.

25. 「意幽堂日記의 作者에 대하여」, 『韓國文學論叢』 1집, 韓國文學會, 1978.
26. 「開港地에 물결친 開化意識」, 『文學思想』 64호, 1978.
27. 「韓國傳來民間豫防諸法抄」, 『民俗文化』 1집, 1978.
28. 「農夫歌 註解」, 『韓國文學論叢』 2집, 韓國文學會, 1979.12.
29. 「嶺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奎章閣』 3집, 서울대 도서관, 1979.
30. 「完版 坊刻小說 刊行的 背景攷」, 『釜山大學校 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 29집, 부산대, 1980.
31.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아대, 1980.
32. 「完板 沈淸傳의 文獻學的 分析」, 『韓國文學論叢』 3집, 한국문학회, 1980.
33. 「完板劉忠烈傳의 文獻學的 分析」, 『語文教育論集』 5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0.
34. 「湖南地方刊行 坊刻本 研究」(I), 『人文論叢』 20집, 부산대 인문대학, 1981.
35. 「完板坊刻小說의 文獻轉化 樣相과 要因」, 『語文研究』 제9권 3-4호, 1981.
36. 「새로 發見된 庚子本 水宮歌에 대하여」, 『韓國文學論叢』 4집, 韓國文學會, 1981.
37. 「조선후기가사의 현실인식」,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38. 「韓國僧侶詩文集目錄草」<資料>, 『語文教育論集』 6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2.
39. 「韓國戲曲研究資料 <東廂記纂>에 대하여」, 『韓國文學論叢』 5집, 한국문학회, 1982.
40. 「韓國漢文詩集目錄草」, 『語文教育論集』 7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3.

41. 「湖南地方刊行 坊刻本 研究」(2), 釜山大學校 『人文論叢』 23집, 부산대 인문대학, 1983.
42. 「三國遺事의 文獻變化 樣相과 要因」-그 病理學的 分析-, 『三國遺事研究』(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43. 「韓國木活字 印刷術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 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44. 「慶南地方 出版文化와 그 特性」, 『전통가꾸기』, 경상남도 도청, 1983.
45. 「한국 옛 ‘문집’의 양태와 출판과정」, 『台也崔東元先生華甲紀念 國文學論叢』, 台也崔東元先生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3.
46. 「朝鮮朝 日本刊行 韓國書籍 初探」, 『語文教育論集』 8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4.
47. 「京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를 위한 摸索」, 『陶南學報』 7-8집, 陶南學會, 1985.
48. 「韓國地區中國古籍存藏現況」(中文),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 1985.
49. 「探村幾個韓國古木活字印刷技術之特徵」(中文),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 1985.
50. 「日本人刊行 한글活字本 <崔忠傳>攷」, 『松具郎然軾博士華甲紀念論集 國文學研究』, 1985.
51. 「退溪의 <朱子書節要>와 그 影響」-外來文獻의 韓國的 受容과 展開-, 『靑康泉龍權博士頌壽紀念論叢』, 1986.
52. 「<朱子書>在韓國接受過程之研究」(中文), 『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 臺灣, 1987.
53. 「古文獻의 文章符號와 尊待謙讓方式」, 『于海李炳銑博士華甲紀念論集』, 1987.
54. 「15·6世紀 中國小説의 韓國轉入과 受容」, 『語文教育論集』 10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8.

55. 「화전가(덴동어미의 비극적 일생)의 敍事構造」, 『石霞權寧徹博士華甲紀念論集』(國文學研究論叢), 1988.
56. 「韓國文獻註釋史序說抄」(1), 『坡田金戊祚博士回甲紀念論叢』, 1988.
57. 「剪燈新話, 剪燈餘話의 韓國展開와 受容」, 『茶谷李樹鳳先生回甲紀念論叢』(古小說研究論叢), 아세아문화사, 1988.
58.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 『退溪學研究』 2집, 단국대, 1988.
59. 「大邱地方刊行 達板坊刻本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제3집, 書誌學會, 1988.
60. 「密陽地方의 文獻資料 調査報告(1)」(共同), 『韓國文化研究』 창간호,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88.
61. 「社會變遷에 따른 文書樣式의 變化」, 『記錄保存』 제2호, 總務處정부 기록보존소, 1989.
62. 「完板<春香傳類>의 文獻學的研究」(日本), 『韓』 114호, 韓國研究院, 1989.
63. 朴震英將軍世傳文獻調査(共同), 『한국문화연구』 제2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
64. 「15世紀 韓中造紙技術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2호, 韓國書誌學會, 1990.
65. 「‘朱子書節要’注釋의 脈絡과 그 注釋書들」, 『書誌學研究』 제5·6합집, 書誌學會, 1990.
66. 「<三國志通俗衍義>의 傳來版本과 그 時期」, 『碧史李佑成先生定年退職紀念 國語國文學論叢』, 1990.
67. 「通度寺 開板佛書의 出版社會學的 分析」-有刊記佛書を 중심으로-, 『韓國文化研究』 3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0.
68. 「性齋先生文集 刊行의 出版社會學的 分析」, 『韓國文化研究』 3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0.

69. 「古小説의 流通構造」, 『韓國古小説論』, 亞細亞出版社, 1991.
70. 「流通媒體로서의 古小説의 문헌성과 변화」, 『古小説史의 諸問題』(省吾蘇在英教授還曆紀念論叢), 省吾蘇在英教授還曆紀念論叢刊行委員會, 집문당, 1993.
71. 「<下慮先生文集> 刊行의 出版社會學的 接近」, 『季刊書誌學報』제10호, 韓國書誌學會, 1993.
72. 「星湖系 實學者 文集刊行의 出版社會學的 研究」, 『사대논문집』 제30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95.
73. 「眉叟 許穆의 著述 刊行 攷」, 『石堂論叢』 제21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5.
74. 「星湖系 實學思想의 現代的 投影 摸索」, 『石堂論叢』 제24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6.
75. 「『朱子書節要』의 註釋書에 대하여」, 『退溪學論叢』 제3집, 退溪學會, 1997.
76. 「桂苑筆耕集의 文獻學的 照明」, 『孤雲의 思想과 文學』, 坡田韓國學堂, 1997.
77.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 『退溪學研究論叢』 제5권, 1997.
78. 「경상감영의 圖書出版」, 『慶尙監營四百年史』, 大邱鄉土文化研究所, 1998.
79. 「江戸時代韓國文獻日本刊行研究(1)」, 『韓國文學論叢』 제22집, 한국문학회, 1998.
80. 「한말 일제시 경남지성들의 문화의식과 그 역량-서적 출판을 중심으로」, 『국난극복을 위한 경남의 생존전략-제5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경남대학교 지역문제연구원, 1998.
81. 「<小訥先生文集> 刊行攷」, 『사대논문집』 36집, 부산대 사범대학, 1999.

<Abstract>

The Questions about Korean Literature
- A Proposal for the Unsettled Chapter

Ryu, Tag-Il

Literature is material that makes it possible to convey academic knowledge beyond time and space.

If one uses incorrect material to study, the result may well be a house of cards. Therefore, it should be assured that literature that is used to study has purity and justification. That is, to say philology is the subject that pursues the purity and justification of literature.

I have asked myself what is literature and searched for the answer all my life. This is the framework of methodology to set up the system of Korean philology. As a result, I came to establish a unique knowledge system of philology.

I divided the knowledge system of philology into word management parts and study management parts. There are six word management parts: philological morphology, the theory of organized compilation, the theory of printing technique, the theory of record aspect, the theory of storage and preservation and the theory of philological nature. The study management parts are the theory of background circulation, the theory of change transmission, the theory of distinguishing truth, the theory of the original criticism, the theory of translation and footnotes, the theory of philological aesthetic etc.

Yet I believe there is an answered task and several questions that

should be called into doubt. I came to be conclusion that I can't find any new appropriate method to approach these studies that is suitable for me.

When I ask myself to recognize the literature made of these 12 parts, the theme or the substance will be revealed. Accordingly, substituting 12 parts of the literature in text study can be one way to proceed. I want to emphasize that there is no loyal road, so one should develop one's own questioning and answering methods.

Key Words : literature, bibliography, philology, textual criticism, methodology